

2026. 01. 16 (금)

• 계량 Weekly - RIA 제과 도입 영향

빠르면 1월 말부터 증권사를 통해 개설 가능할 예정.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 복귀 계좌.

↳ 쉽게 말하면 해외주식 국내로 전환해서 원화 상품으로 매도하라는 건데 세금 혜택을 통해 원화 강세를 견인해보려는 시도.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투자금액 12.4%가 국내로 돌아온 사례.

• After Market

로봇 순환매 이어지며 강세 지속, 나우로보틱스 M&A 소식 긍정적.

나우로보틱스가 한양로보틱스 지분 인수. 스테이بل코인업 20일 나온다!

한은 1월 금동위 '동결'. 지난해 4년살린 적자 9조원 흑박.

20대 일자리 3년 연속 감소.

01.20

이번 분석에서 알게된 점은 기업 펀더멘털만큼이나 정치적 이벤트와 컨퍼런스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CES 2026 사례도 로봇주 급등으로 이어졌고 미국 기업의 펀더멘털 상승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불확실성이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됐다. 단기 모멘텀에서는 이러한 외부 정보까지 보완해서 확인해야겠다.

또, 과거 증시 연속 상승의 역사를 보면 확장 13일(1984. 2019) 이후 3개월 후 까지도 긍정적으로 지속되다가 과열 후 조정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가지 더 주목할 포인트는 대형주 상승 랠리 이후 순환매로 완화되며 섹터별 이전 중소형주의 상승도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번에 눈여겨 봐야할 부분인 것 같다.

2026. 01. 19 (월)

• 독자전략 Note - K 증시 양극화

코스피는 1월에만 +14.9% 상승. 지수 상승 기여도에 EPS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순이익의 경우 IT업종 중 반도체가 전체 이익 50% 차지.

AI 산업 성장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 반도체 투자 비중 유지를 촉진.

산업재 중 조선과 방산이 해외 수주 확대로 긍정적. 경기소비는 CES 기점으로 로보틱스 모멘텀 부각.

유틸리티는 AI 시대 에너지원으로 원전의 관심이 오르며 강세.

이 과정에서 사이즈가 큰 일박 종목만 상승하는 쏠림 현상 지속.

• 글로벌 전략 Brief

트럼프 행정부발 정책 불확실성 지속. 미국 주요 지수 상승 제한 요인. 금주 다보스포럼 트럼프 대통령 연설

미국·유럽 갈등 심화. 정부 지출, 관세 관련 정책 구체화.

주말 증시 - 미국 S&P 500, 나스닥 지수 장중 보합권 등락 후 약보합세 마감.

주간 증시 - 플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8% 상승

트럼프 행정부 금융·헬스케어 산업 내 부담 확산시키는 규제 발표.

↳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 반대하는 유럽 8개국 대상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2월 1일부터 10%

-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 6월 1일부터 25%

• 계량 Note - KD SPI 12거래일 연속 상승

역사상 3번째 있는 일. 과거 강한 모멘텀이 발생하면,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현재 시장 상승은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에 몰림. 과거와 유사.

역사적으로는 대형주 위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 과거 사례 분석이 필요해 보임.

* 펀더멘털 - 재무상태, 성장 가능성, 사업 지속성 등 근본적 기업 가치.

* 모멘텀 - 주가 추세 지속력. 펀더멘털과 별개로 상승 또는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

* 순환매 - 자금 회전, 시장 우월성 유지 방식.